

영세업자 64% 3년도 못 버텼다

광주 자영업자 지난해 2만2386명 폐업…전남은 2만3430명

지난해 폐업한 광주지역 영세업자는 3명 중 2명은 개업한 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광원 원주)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지역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수는 13만 2540명으로, 2009년(12만6776명)보다 5764명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2만8588명이고, 폐업한 자영업자는 2만2386명이었다.

이 중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영세업자)는 5만694명

으로 38.2%를 차지했고, 일반사업자는 6만6923명, 면세사업자(기초생활수준)는 1만4923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서부사업(2만6752명, 20.1%)과 부동산임대업(2만4563명, 18.5%), 소매업(2만2645명, 17.0%)에 종사하고 있었다.

자영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북구로 4만3657명이었고, 이어 서구 3만474명, 광산구 2만8138명, 동구 1만6887명, 남구 1만3384명 순이었다. 특히 영세업자는 북구지역에 40%(2만120명)가 물려 있었다.

지난해 폐업한 광주지역 사업자는 총 2만3732명으로, 개인사업자는

1346명(5.6%), 일반 1만890명(45.8%), 간이 9172명(38.6%), 면세 2324명(9.7%) 이었다. 자영업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자영업자의 16.8%(2만2386명)가 지난해 망한 셈이다.

특히 영세업자 64.2%(5894명)는 창업한 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내에 문닫은 사업자는 1913명, 2년내 2639명, 3년내 1324명 이었다. 반면 10년 이상 버틴 사업자는 765명으로 8.3%에 그쳤다. 일반사업자 59.3%도 3년을 버티지 못했다.

전남지역 자영업자는 총 17만 1656명이었다. 이는 전년(16만5149명)보다 3.9%(6507명)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일반사업자는 7만4020명, 간이 6만8809명, 면세 2만8827명이었다.

여수(3만220명)에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목포(2만6098명), 순천(2만6044명), 광양(1만2545명) 순이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2만3430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이 중 55.2%인 1만2948명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축협·순천광양축협 최우수상 전국 축협 경제사업 우수사례 평가



나주축협과 순천광양축협이 전국 축협의 경제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충남 천안 상록리 조트에서 열린 '2011년 축협 경제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전남 대표로 출전한 나주축협과 순천광양축협이 동시에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2개 축산농협 중 지역별로 10개 축협이 사업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나주축협은 오리 계열화 사업인 '해두루오리 사업'을 추진, 지

난해 92억원의 매출을 올려 오리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순천광양축협은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을 펼쳐 지난해 3만t의 축분을 퇴비화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보급, 상생효과를 창출했다.

나방민 농협 전남본부 축산팀장은 "전국 축협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축협이 지역 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9월 中企 55곳 워크아웃·퇴출

신용위험평가 C·D등급

최근 마무리된 중소기업 구조조정에서 55개사가 쓰러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899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지난달 말 30개 기업에 C등급(워크아웃)을, 25개 기업에 D등급(법정관리)을 통보했다.

이번 신용위험 평가 대상은 금융권의 여신공여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 가운데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다.

이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는 능력)이 3년간 1을 밟거나 영업현금흐름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이 C·D등급으로 분류됐다.

C등급으로 분류되면 자구계획을 마련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D등급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매각·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은행들은 고액의 농어촌은행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이들 역시 최근 3년간 1을 밟거나 영업현금흐름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이 C·D등급으로 분류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채권은행들과 함께 지난 4일부터 중소기업 가운데 비외감법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에 착수,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추가로 분류할 계획이다.

청하거나 매각·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은행들은 고액의 농어촌은행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이들 역시 최근 3년간 1을 밟거나 영업현금흐름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이 C·D등급으로 분류됐다.

조선·해운업의 경우 상위권 몇몇 업체를 제외하면 이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모두 89개가 됐다.

6월 말 여신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 34개가 쓰러진 데 이어 이번에 중소기업 55개가 쓰러지면서 올해 들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모두 89개가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채권은행들과 함께 지난 4일부터 중소기업 가운데 비외감법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에 착수,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추가로 분류할 계획이다.

6월 말 여신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 34개가 쓰러진 데 이어 이번에 중소기업 55개가 쓰러지면서 올해 들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모두 89개가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채권은행들과 함께 지난 4일부터 중소기업 가운데 비외감법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에 착수,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추가로 분류할 계획이다.

건설업 체감경기지수 대형↑ 소형↓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체감하는 건설업 경기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8월 보다 4.9포인트 오른 73.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밟으면 현재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업체 지수가 13.2

포인트 오른 91.6, 지방업체 지수가 7.1포인트 내린 47.5를 기록해 서울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업체 지수가 13.2포인트 오른 91.6, 지방업체 지수가 7.1포인트 내린 47.5를 기록해 서울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 떨어진 43.9에 각각 그쳤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3.1포인트 급상승한 100.0으로 지난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9포인트 떨어진 73.1, 중소업체 지수는 8.7포인트